

# 與 개헌 드라이브에 野 개헌저지 나서

### 여, 정부 발의권 거론 야 압박 한국당 “동시투표 절대 안돼” 국민의당 “국회가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개헌 이슈가 다시 부상한 가운데 여야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개헌 발의권을 거론하며 야권 압박과 함께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개헌 국민투표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다 국민의당도 통합을 둘러싼 내용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으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개헌 특위를 운영한 만큼 이제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화하는 절충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 동안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화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연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 개헌특위가 본격 가동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지는 않는 분명한 전제”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 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과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 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과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野 최저임금 인상 ‘맹공’...與 “보호장치 마련”

### 국민의당 “고용 감소” 바른정당 “과속 안돼” 與 “영세기업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노동자 생활안정 목적으로 지난해 6470원(시급)이던 법정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060원(16.4%) 올린 것을 두고 야권은 자영업자 몰락, 청년실업 가중을 비롯한 고용시장 불안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론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여당은 대기업 규제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정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청년실업률은 9.9%, 제2차 실업률이 22.7%로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의 기조로 삼은 결과”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즉각 수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강하게 주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유 대표는 이날 최고위

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올해 경제가 3% 성장하고있지만 수출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을 제외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연일 3% 성장이 대단한 경제적인 성과인양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당속도로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고용시장에서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은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삶의 보장과 사람 중심 경제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라고 지적하는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해 우리 경제의 뿌리라는 인식 아래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쉼대에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한데, 영세중소 가맹점 절반 이상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초도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라며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주부터는 노동, 경제계를 돌며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여야 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 30일 개회...내달 5·6·7일 대정부질문

여야는 11일 오후 30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구체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이며,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기로 했다. 또 개회식 다음날인 31일과 다음달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6일 이틀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5일 정치·통일·외교·안보, 6일 경제, 7일 사

회·교육·문화 부문에 대해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0일과 28일 열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으로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키로 했다”며 “가능하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 질문일에도 상임위를 열어 최대한 법안심사를 하도록 독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국회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위 활동 문제에 대해선 “소위 구성을 완료해 가능한 소위는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신년 간담회... “투기 변질...특별법 제정 준비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폐쇄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

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정가라운지

# 하태경, 5·18 왜곡·날조 진상규명법 발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가기관의 5·18 진상·왜곡·날조 행위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찬양곡’으로 몰아붙인 행위 등에 있어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로 넣은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는 행위가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행됐다”며 “문제는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무 인사인 지만원씨가 5·18에 대해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이용한 사진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기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첩의 일부로 일반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양곡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앞장섰다는 의혹을 주장해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음악 학 과	○	
예능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과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